INSIDE
YTN
2017. Vol. 131
11
12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긴박한 순간이라면,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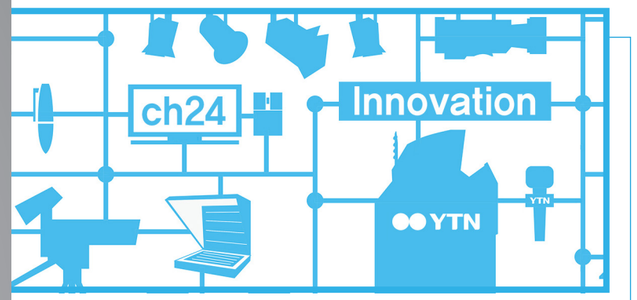
YTN에 뉴스를 제보하는 스마트한 방법

YTN NEWS YTN 앱 제보	YTN앱을 열고, 맨 위 [제보]버튼 터치!!
전화 제보	02-398-8282(빨리빨리) / 8585(바로바로)
말하는 제보	전화 1636 눌러서 연결된 후 “뉴스제보~”라고 말하세요.
이메일 제보	8585@ytn.co.kr
홈페이지 제보	http://www.ytn.co.kr-[제보영상]-[제보하기]
트위터 제보	http://twitter.com/YTN24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Exclusive Tomorrow YTN

CONTENTS

10 Oct - 11 Nov 2017 / vol.131



IN

In Newsquare
우리에게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 조승호 04
특별기고 _ YTN 진정한 혁신의 길 | 김찬배 06

Exclusive Now
“6년 만에 걸려온 전화” | 전준형 08
‘기업 갑질 문화 고발’ 추적기 | 최기성 10

이 방송 궁금하다
그 많던 동요는 다 어디로 갔을까? | 이윤정 12
뷰티풀 코리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다 | 김영록 14

국민신문고
누가 진실을 외면하나? | 이연아 16

YTN 방송기술인협회 체육대회
함께해요, 명랑운동회 | 안용고 18

YTN – 연천, DMZ 평화자전거대회 랠리 100
자전거대회를 마치고 | 변재철 20

부서탐방– 타워사업팀
남산서울타워 어벤저스 | 김정기 22

2017 3분기 자랑스러운 YTN인 상 23

SIDE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정중원 작가
24 홍경한 | ‘환영’을 통한 또 다른 ‘환영’, ‘실재’ 이상의 ‘실재’

앵커의 변신 _ 정병진 앵커
26 김여진 | 한옥의 맛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_ 차이코프스키의 발레음악
28 유석현 | 몽환적인 동화의 세계를 엿보는 즐거움

최광희의 영화가 그린 세상
30 최광희 | 시대, 그리고 한국영화의 기회주의

낭만인 탐구 _ 김만진
32 김만진 | ‘첼로’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김여진 앵커의 〈Number &Talk〉 _ 재즈 뮤지션 류복성
34 김여진 | 칠순의 현역 드러머 류복성

YTN 이모저모
38 YTN 이모저모

표지 정중원 作 | 빈센트, 130.3 x 116.8cm, Acrylic on Canvas, 2017

흔히 극사실주의를 말할 때 구시대적인 획일주의에 빠져 작가의 개성 상실과 기계 종속적인 입장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지만 오늘날의 작가들에게 이러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작금의 작가들은 단지 사물을 정밀히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작가의 정신세계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Technique)의 한 가지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중원의 많은 인물 작품들은 ‘표현’으로서의 한계점을 ‘재현’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새로운 리얼리즘 방법을 통해 다시 작품에서의 주제를 되살리고 전혀 다른 독립적 복제성, 가상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고루 엿보인다.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장인적인 과정이 작업에 녹아 있다. 극사실주의에 걸맞게 개성이 거세됐지만 그 자체로 개성이 되는 작품들이다.

발행인 김호성 편집장 최재용 〈커뮤니케이션팀〉 0392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T 02.398.8000 제보 02.398.8585 디자인·인쇄제작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우리에게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우와 고양이가 숲에서 만났습니다. 여우가 물었습니다. "너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재주를 갖고 있냐?"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높은 벽이나 나무 위에 오르는 재주 밖에 없어."
그러자 여우가 자랑합니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100가지가 넘어서 어떤 위험도 피할 수 있어."

어느날 사냥개와 사냥꾼이 쫓아왔습니다.
고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여우는 100가지가 넘는 방법을 놓고 갈팡질팡하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 이솝우화 〈여우와 고양이〉

조승호 부국장 | YTN 보도 콘텐츠 혁신을 위한 TF팀

지금 YTN이 처한 환경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여우와 고양이 가운데 어느 동물이 부러우신가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YTN은 여우가 아니라 고양이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의 여지가 단 하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솝 우화에서 고양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혁신은 과거의 혁신과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좋으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YTN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혁신을 한다고 돈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조직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장대우 이상 비율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완벽한(?)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경륜 있는 이 고급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상과제가 있었습니다.

YTN의 미래상에 대한 구성원들의 바람은 다양했습니다. '왜 YTN은 존재감이 없는가?' '24시간 뉴스만 하는 YTN이 왜 다른 방송보다 더 많은 특종을 쏟아내지 못하나?'

'특종이나 기획 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 '후배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구닥다리 취급하는가?'…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YTN이 1등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하는 소망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현실의 여러 제약들을 고려해 YTN 구성원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는 게 혁신TF의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업무를 하는 TF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경우에는 언성까지 높일 정도로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를 느꼈지만, 현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상에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가 혁신안입니다.

냉정히 YTN의 위치를 가늠해 봅니다. 과거에는 유일한 뉴스 전문 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른 뉴스 전문 채널이 생겼고, 지상파와 종편들도 하루 종일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TV뉴스를 볼 수 있는 9개 채널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뉴스를 보고 싶으면 YTN부터 틀었지만, 이제는 어느 채널이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차별화'…

'YTN에서는 다른 뉴스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뉴스는 오직 YTN에서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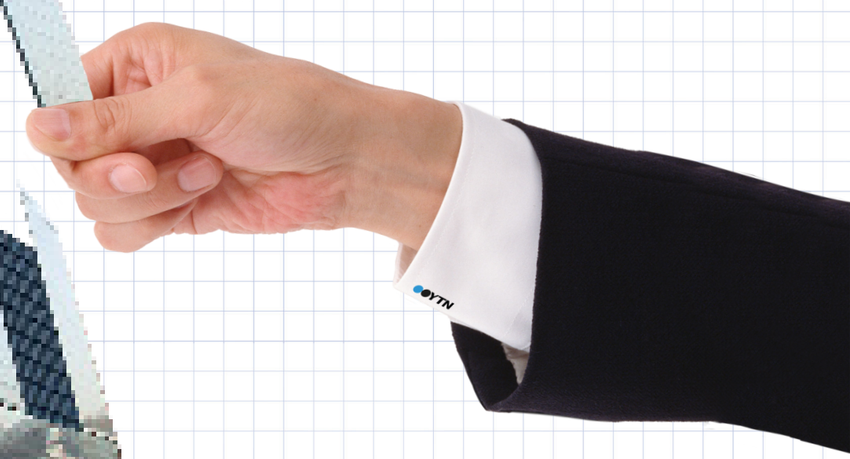
YTN 특종 보도를 다른 언론들이 부러워하며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그런 파괴력.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 당시 사람들이 jtbc를 틀 때마다 '오늘은 어떤 놀랄 만한 뉴스가 나올까?' 기대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YTN을 틀면서 '어떤 뉴스가 나올까' 기대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배가 함께 일하게 된 후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밥을 할 테니 너는 반찬을 만들어라"… 일상적으로 필요한 리포트 물량은 선배가 맡고, 후배는 맛깔스러운 콘텐츠를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YTN의 미래와 역할 분담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혁신편지를 통해 '의좋은 형제'를 미래상으로 그렸듯이 말입니다. YTN을 대박으로 이끈 보도국에 박수를 보내고, 보도국원들은 뒤를 받쳐준 YTN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하고… 선배들은 후배를 자랑스러워하고, 후배들은 밥을 책임져준 선배들에게 고마워하고…

혁신TF의 그룹웨어 계정 아이디는 'futureytn'입니다. YTN의 미래입니다.

혁신 TF가 그리는 모습이 단지 우리들의 '꿈'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합니다. 꿈만 꿀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특별기고]

YTN 진정한 혁신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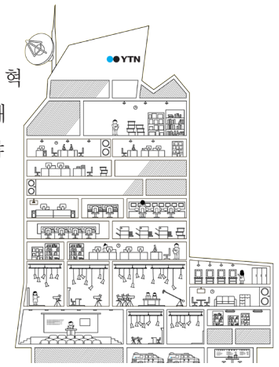
김찬배 박사 | C-TECH연구소장

눈만 뜨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사와 뉴스를 접하게 된다. YTN을 비롯한 모든 언론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디에서 경쟁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경계가 사라지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유일한 생존 전략은 혁신이다. 혁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디자인 등 겉모습만 바꾸는 표면적 수준(Surface level), 기술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중심의 기본적 수준(Basic level), 조직문화와 소통방식 등 근본적인 조직 문화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정한 혁신(Deep Innovation)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기본적 수준, 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T) 등 기술에 관한 것들이다. 물론 기술을 빼놓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와 사람의 문제이다.

YTN의 미래 또한 기존의 판을 뒤집겠다는 열망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진정한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혁신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고려하여야 할까?



편집자 주 _ 김찬배 박사는 강의와 집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기업 교육 담당자들로부터 『명품 강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진정한 혁신』, 『요청의 힘』, 『키맨 네트워크』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 그대 진정한 열심을 가졌는가?

"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 뒤에 숨은 열망이다".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의 말이다. 능력과 기술이 모자라서 혁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망(심)이 없기 때문이다. 능력은 그가 열망하는 만큼 표현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리더란 자신이 맡은 조직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망이 무엇을 위한 열망이었느냐이다. 요즘 기업과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깎아내리게 하는 일등공신들도 어쩌면 나름 열심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거짓 열심이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열심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조직과 주변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to value),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며(to esteem highly), 진정으로 사랑(to love)하는 의도가 있었는가이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의도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거짓 열심이다. 하지만 비록 일을 하다 실패할지라도 공동체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구성원들의 향상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심이다.

리더는 누가 진정한 열심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거짓 열심을 가진 직원들로 패거리를 만들어 인의 장벽을 치고 그들이 우대받게 만들게 되면 진정한 열심을 가진 직원들은 발을 붙일 수 없다. 이런 조직에서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YTN을 위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나는 진정한 열심을 가졌는가를 자문해야 할 것이다.

◆ 건설적 불만의 조직을 만들라

혁신의 마지막 퍼즐은 소통이라고 한다. 뛰어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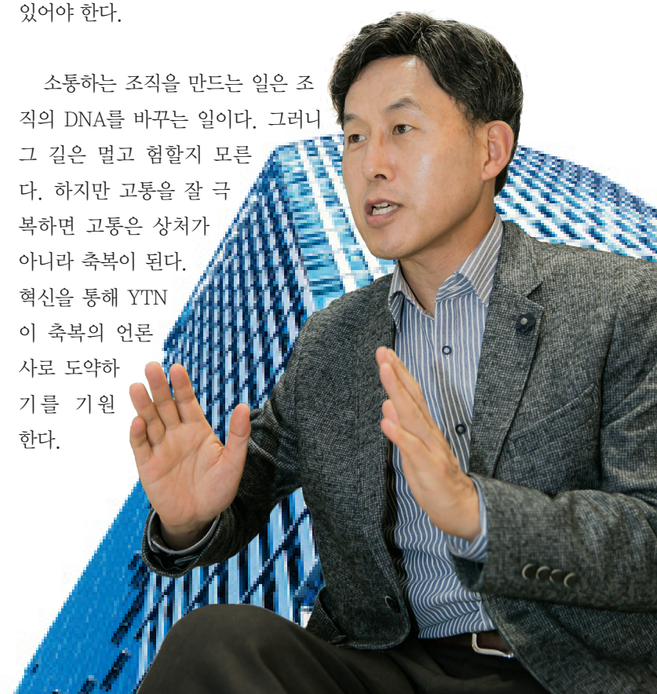
한 회사의 CEO가 세계적인 혁신적인 기업을 방문한 후 돌아와 '도대체 우리 직원들은 왜 그들처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고 역정을 냈다. 그 얘기를 들은 직원 중 한 명은 'CEO 앞에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수직적인 문화는 그대로인데 그걸 CEO만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다.

소통을 '소리치면 통한다(?)'로 착각하여 소통하라, 혁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통은 명령이 아니라 행동이다. 경청이 중요하니 경청하라고 명령하지 말고 반대의 쓴소리를 달갑게 들어주면 소통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소통은 99% 리더의 책임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말단 직원이 CEO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 상태 즉,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하고 혁신적인 조직은 건설적 불만(Constructive Dissatisfaction)을 가진 직원들을 존중한다.

YTN이 진정한 혁신에 이르고자 한다면 건설적 불만을 가진 구성원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발탁하여 그들이 가진 진정한 열망을 혁신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조직의 DNA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니 그 길은 멀고 험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통을 잘 극복하면 고통은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 혁신을 통해 YTN이 축복의 언론사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6년 만에 걸려온 전화"

전준형 기자 | 보도국 정치부

'해직자가 오네요(On Air)' 행사가 진행 중이던 상암동 사옥 1층 미디어홀, 뿌연 핀조명이 9년 만에 회사로 돌아온 선배를 비추고 모두가 숨죽여 선배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을 즈음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지난 몇 년간 수백, 수천 번을 상상했던 바로 그 순간, 복직한 선배들과 함께, 회사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며 가슴에 꾹꾹 억눌러 왔던 말과 감정을 모두 털어버리고 실컷 웃고 실컷 울고 싶었던 그날, 불법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의 마지막 해명을 듣기 위해 늦은 밤 강변북로를 달려 강남에 있는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향했다.

이젠 YTN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자기 최면으로 위안을 삼으며…

• 한 통의 전화

모 의원과 기자 몇몇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전화기를 들고 나와 '통화'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전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인사말만 듣고도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바로 떠올랐다. 6년 전 법조 출입 당시 전직 국무총리 아들과 재벌 회장, 여자 연예인의 술 접대 의혹까지 엮어져 꽤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을 제보했던 바로 그 사람. 신경이 곤두섰다.

"최근에 뉴스에서 얼굴 봤는데 정치부에 있으신가 봐요. 제가 정치인 관련해서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었다. 바로 만날 약속을 잡고 식사 자리로 돌아왔다. '야당 대표', '불법 금품', 두 단어에 이미 심장은 적잖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 넘치는 증거들

제보자가 내놓은 자료들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에게 현금과 명품을 건네면서 사업 알선을 청탁했고, 이혜훈 대표는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들을 소개해줬다는 것. 제보 내용은 치밀했고, 증거들은 차고 넘쳤다. 만난 장소와 일시, 당일 식사 영수증, 건넨 돈의 액수와 명품의 가격, 구매 영수증까지… 필요한 건 꼼꼼한 검증과 법리 검토였다. 검찰과 변호사를 통해 의혹 제기와 법적 방어에 필요한 근거들을 체크했다. 거의 모든 요소들을 충족하고 있었다. 당사자에게 최종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될 듯싶었다.

• 최종 확인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말로 시작된 이혜훈 대표의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보도 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혜훈 대표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명품은 코디용으로 선물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다."
"김치는 여러 사람이 담가줘서 잘 몰랐다."

본인 스스로 내뱉은 말만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정치 권력의 힘이,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본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돈과 명품을 스스럼없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했다.

• '운칠기삼'

보도가 나간 뒤 이혜훈 대표는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를 계기로 정가에서는 본격적인 정계 개편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보도였지만, 어렵고 힘든 취재 과정을 거친 보도는 아니었다.

'운칠기삼', 수습 시절 바이스였던 선배는 특종이라는 건 노력보다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운은 발로 뛰는 기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입사 13년 차가 돼 찾아온 운이 열심히 발로 뛴 결과라고 하기엔 스스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지만, 이번 보도가 해직 선배들의 복직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YTN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업 갑질 문화 고발' 추적기

최기성 기자 | 보도국 사회부

〈YTN 갑질 특별취재팀〉은 보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꾸준히 이슈를 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갑질'을 혐오하지만, '갑질'은 여전하다. 대기업은 더욱 심하다. 대표를 비롯한 고위 임원은 '갑'이 되고 직원들은 '을'이 된다. 갑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을'이 목소리를 내면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린다. 이번 YTN 연속 기획은 '기업 갑질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보도하기 위한 취재였다.

YTN은 기업과 간부를 철저하게 실명으로 보도하면서 '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의 사과와 대책을 끌어냈다. 중재위나 반론 신청 등 단 한 건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 철저한 팩트 체크와 취재의 결과이다. 성역 없는 보도로 시청자들의 성원과 추가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 "을의 목소리를 알리다"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기업 갑질 문화'를 고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기업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취재하기 위해 이른바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일도 허다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기업의 논리를 뒤집기 위한 발품 취재가 계속됐다. 중견기업 직원의 폭행 동영상을 찾기 위해 종일 길거리를 누볐다. 30곳 넘는 상점을 모두 뒤지기도 했다. 롯데월드에서는 놀이기구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의자를 찾아다녔다. 증언 한 마디, 팩트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 농협 은행 지점을 종일 헤맨 날도 있다. 이동우 대표의 하이마트 갑질을 취재할 때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일일이 추적해 취재원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번 연속 보도에서 취재진이 접촉해 녹취를 남긴 전·현직 직원들은 50명을 훌쩍 넘는다.

• 반론은 '0'건

폭행부터 폭언, 부당 해고 등 다양한 기업 갑질은 YTN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모든 보도는 YTN이 최초였다. 보도 뒤 이동우 대표와 권성문 회장, 새마을금고 등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보도 해당 기업들은 각종 홍보 자료를 내며 YTN 기사 밀어내기를 시도했지만, 이슈는 묻히지 않았다. 기업 임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국에 찾아왔다. 간부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YTN 보도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다. 부인하고 발뺌하기 일쑤였던 기업이 대책을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취재했다는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달리 기업의 경우 이미지 때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취재진을 성가시게 하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연속 보도에서 이름이 노출된 10여 개 기업은 단 한 건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 보도 내용을 그대로 수긍할 뿐이었다. 그만큼 취재 과정은 혹독했고 철저한 팩트체크 과정을 거쳤다.

• 성역은 없다… 잇따라 대책 내놓은 기업들

방송 뉴스의 특성상 모든 기업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기업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모든 기업을 실명으로 보도한 점이 큰 역할을 했다. 이동우 대표부터 권성문 회장, 대우정보시스템,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동부증권, 새마을금고까지…. 해당 기업 간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재진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 이해 관계자를 모두 취재하고 복수의 취재원에게 사실을 검증했다. 10개에 육박하는 기업을 차례로 실명으로 비판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과 다르다면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자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YTN의 성역 없는 보도에 시청자도 응답했다. 첫 보도 이후부터 관련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의 피해 사례 제보가 잇따랐다. 단순히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인터넷 기사에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다. SNS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을이 당연히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을 문제로 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보 말고도 현직 직원들이 "속이 시원하다", "고맙다"라는 응원 메일을 수십 통 보내왔다. 갑질 연속 보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YTN의 취재는 내부 고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실명으로 보도를 낼 수 있게 힘써준 부장과 데스크, 큰 그림을 그려준 캡과 바이스, 인력 부족에 시달리지만, 취재팀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을 모두 소화해준 사건팀 구성원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그 많던 동요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이윤정 작가 | YTN 라디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데 우리 동요는 마치 낡고 오래된 헌 옷처럼 수 십 년 전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 여정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많던 동요는 다 어디로 갔을까?
저는 동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간직돼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좋은 동요를 만들어주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이겠죠?
동요는 어른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배우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배우 소유진의 내이션 마지막 부분 한 구절입니다.
이번 YTN 라디오 추석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그 많던 동요는 다 어디로 갔을까〉
4개월에 걸친 긴 취재 여정 끝자락에서 결론처럼 들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시작은 다소 엉뚱했습니다. "어라 그 많던 동요가 다 어디로 갔데?" 우리 땐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가사 이상한 가요만 불러댄다며 궁시렁대듯, 누군가가 툭 뱉은 질문 하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가 어린이였던 시절엔 "또옥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골목이나 공터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면서 불렀던 수많은 구전 동요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숲 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색종이를 고옵게 접어서~" 한번 부르면 메들리로 한 시간은 족히 부를 법한 수많은 창작동요가 있었고,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일어나요 일어나요~"로 대표되는 동요를 가르쳐주던 '국민 어린이 프로그램'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실험해 봤습니다. 무작정 초등학교 앞을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요즘 너네들이 제일 많이, 잘 부르는 노래가 뭐야?" 답변은?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수박을 먹을 때는 씨발라 먹어~" 마치 최신가요 차트를 보는 것 같았지요.

이번에는 동요 몇 가지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별 음음음음 음음음~" 반짝반짝 작은별은 가사를 모르는 아이들이 허다했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고향의 봄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전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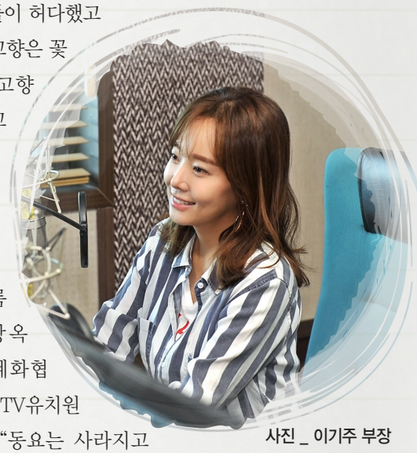


사진 _ 이기주 부장

지난 여름 만났던 김방옥 한국동요세계화협회 회장(前 KBS TV유치원 음악감독)은 "동요는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오래전에"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이민숙 랄랄라 친구들 대표 (前 MBC 음악감독)는 "어른들은 갖고 있지만 지금 아이들에겐 없는 것"이 동요라고 하더군요.

제주 도란도란 중창단, 제주어 창작동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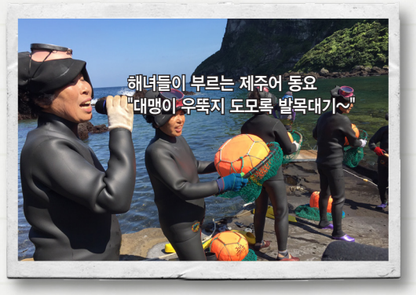
제목처럼, 진짜 그 많던 동요는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사라져가는 동요를 다시 찾아 나서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불씨를 되살리려는 수많은 어른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동요의 놀라운 힘을 찾아 나선 봄, 여름,가을의 여행 기록입니다. 서울, 세종, 목포, 부산, 제주를 다녔고, 옌벤, 캐나다, 홍콩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백창우,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

이 여행길에서 저는 뜻밖에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코흘리개 꼬마 이윤정을 마주했던 겁니다. MBC 창작 동요제가 처음 나왔을 때 집 마루에서 티브이를 보다가 '아 저 노래 정말 예쁘다' 생각하면서 따라 부르던,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저녁연기가 피어나는 풍경'을 상상하던 그때 그 시절 어린 윤정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노을'의 발자취를 찾던 어느 날,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옛 기억이 떠올라 많이 울었습니다.

뚜럼브라더스 박순동 선생님과 교래분교 아이들

제주도에서 도란도란 중창단과 함께 제주어 동요를 만들고 계셨던 김명진 선생님은 이런 이야길 했습니다. "동요는 어른들을 위한 노래다." 이 방송을 접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녀들이 부르는 제주어 동요
"대맹이 우뚝지 도모록 발목대기~"

취재 현장을 다니며 동요 부흥 운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나의 어린 시절이 행복했었구나'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동요의 주체인 아이들이 아닌, 저와 같은, 나이 마흔 줄에 들어서 일에 치이고 삶에 찌들어 돈을 벌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어른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안은 숙제를 즐겁게 나눠지려고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 정도의 행복을 주고 있는가... 노래 한 곡 정도의 추억과 위로를, 어른의 몫을 다 해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묘하게도 열정적인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담당 피디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었고, 내레이션도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배 속에 셋째를 둔 엄마 소유진. 이들의 마음이 모여 더 따뜻한 선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많던 동요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동요를 마음껏 부를 수 있어 행복했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을 보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자연 다큐멘터리

'뷰티풀 코리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다.

아직 늦겨울의 추위가 남아있던 2월의 어느 날.
'뷰티풀 코리아'는 한반도의 자연을 오직 영상미만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그 첫발을 뗐다.
팀원 모두 열정과 파이팅은 차고 넘쳤지만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은 부족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넘쳤던 파이팅, 서로를 믿고 끝까지 가 보기로 했다.
이후 릴레이 회의와 수차례 사전 답사를 진행하면서 팀워크를 다져갔다.

김영록 PD | 사이언스TV 콘텐츠제작팀

◆ 봄_길 위의 날들

봄기운 완연한 4월,
촬영팀은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푸른 섬, 청산도로 향했다.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청산도는 소문대로였다. 3박 4일 섬에 머물며 남도의 봄을 카메라 가득 담아냈다.

촬영팀의 여정은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빡빡하게 돌아갔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전국 5도를 돌며 우리 땅의 진경산수를 담아내기 위해 촬영팀은 한 달 중 20일 이상을 촬영에 쏟아 부었다. 그렇게 길 위에서 4월이 가고, 5월이 가고… 신록의 계절 여름을 맞았다.

• 뷰티풀 코리아
– 2018년 1월 방송 예정
• 연출 : 김영록 PD, 김완민 PD
• 작가 : 이은진, 전민정
• 촬영 : 김장훈, 김국진, 인철용, 유재진

◆ 여름_뷰티풀 코리아의 수난시대

유난했던 긴 가뭄과 국지성 호우. 여름은 말 그대로 수난시대였다. 그러니까 하늘과의 '밀당'이 시작됐다는 말이다. 긴 가뭄에 계곡도, 호수도, 심지어 강도 다 말라 버렸고 남해 다랭이 마을에선 올해 논농사는 포기해야겠단 마음 아픈 소식도 들려왔다. 장마가 시작되자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비가 오락가락했다. 쨍한 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았던 날들, 그렇다고 망연자실 하늘만 원망하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 오, 하늘이시여!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국의 기상 상황을 체크하는 일이었다. 전국의 일기예보 상황을 펼쳐놓고 비를 피해 촬영지를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기예보는 자주 빗나갔고, 짐작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비가 안 올 거라 했던 곳에선 비가 내리기도 했다. 고생 끝에 기껏 정상에 올랐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원하는 장면은 단 한 컷도 못 건진 채 다음을 기약하며 산을 내려와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불쑥 다시없을 명작을 안겨주기도 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어떤 날에는 한없이 너른 품을 보여주는 자연이었다.

•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돌이켜보면 하늘의 배신도 배신이지만 일일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 사고도 많았다. 강원도 고씨동굴에선 수억 년의 세월이 빚어낸 조각품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깊이 들어갔다가 동굴 속 미아가 될 뻔하기도 했고, 경기도 한탄강에선 추락한 드론을 건지기 위해 몸을 던졌다가 급물살에 휩쓸려 가까스로 빠져나오기도 했다. 위기의 순간들을 넘길 때마다 아름다운 한 컷 한 컷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차곡차곡 곳간에 곡식을 쌓는 농부의 마음이 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뷰티풀 코리아'

오를 때 '악' 소리 난다는 월악산, 치악산부터 해발고도 천 미터가 훌쩍 넘는 설악산, 태백산, 가야산 등등 촬영 장비를 들고 지고 5시간 이상 산을 오르는 일은 실로 고행이었지만 그 고행 끝에 맛보는 정상에서의 짜릿한 쾌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발아래 풍경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고, 감히 말하건대 비로소 산을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됐다.

◆ 가을&겨울_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제 곧 가을은 깊어지고 겨울이 시작된다. 지난 8개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카메라에 담아낸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전할까? '뷰티풀 코리아' 팀의 고민도 가을과 함께 깊어갈 것이다. 그리고 2018년 새해에는 1년 내내 공들여 만든 특별한 선물을 들고 시청자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필로그에는 이렇게 쓰고 싶다.
"뷰티풀 코리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였노라라라라~"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누가 진실을 외면하나'

이연아 기자 | 편성제작국 제작2팀

군대 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싸늘한 시신과, 군번줄만 남겨졌다. 군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사건을 수습하려 했다. 유족의 절규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 맺힌 아버지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장병을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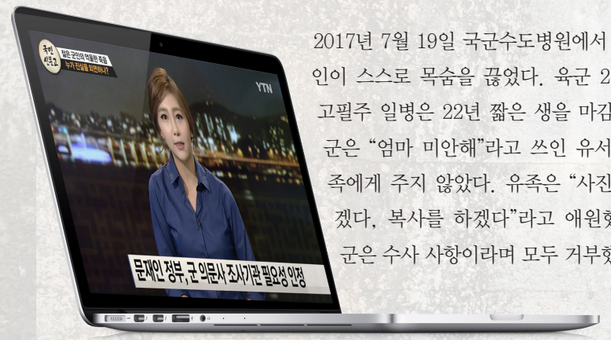
◆ 순직 인정 그 후, 끝나지 않은 아버지의 전쟁

올해 초 군의문사 두 사건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1984년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최전방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허원근 일병과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JSA 지하 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 사건이다.

언론들은 순직 인정 소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앞다퉈 보도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유족은 모두 분노했다. 진상 규명과 사과 없는 순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유족이 수십 년간 '타살'을 주장했고,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외부 조사기관 역시 '타살'로 결론 내렸지만, 국방부는 '자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건이다. 심지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초동 수사 부실로 증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자살 타살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방부는 "대법원도 자살이라고 판결했다" 주장했다.

취재는 "국방부가 왜 이토록 두 사건에 대해 끈질기게 자살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외면했는가?"에 집중했다.

◆"국가를 믿고 아들을 줬는데…" 유족의 절규



2017년 7월 19일 국군수도병원에서 한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 22사단 고필주 일병은 22년 짧은 생을 마감했다. 군은 "엄마 미안해"라고 쓰인 유서도 유족에게 주지 않았다. 유족은 "사진을 찍겠다, 복사를 하겠다"라고 애원했지만 군은 수사 사항이라며 모두 거부했다.

고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병사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유족들의 가슴을 애끓게 만들었다. 군은 유족에게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취재 결과 사건 발생 이틀 후 열린 육군 수뇌부 현안 점검 회의에서는 유족이 언론 접촉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라는 지시 등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

2017년 고필주 일병, 1984년 허원근 일병, 1998년 김훈 중위 사건, 세 사건은 다른 듯하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시신을 인계하는 것으로 군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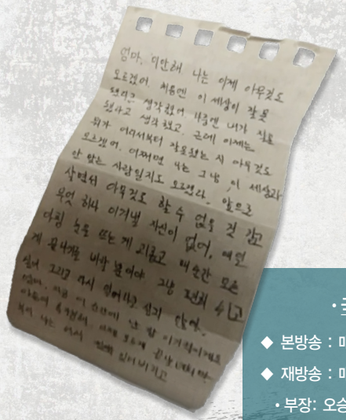
◆"아버지의 전쟁, 왜 시작됐나"

군의문사,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 군의문사는 과거에도 현재도 계속 터지고 있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군 특수성을 인정받아 자체 사법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 체계가 군 조직과 무관하지 않아지면서, 수사와 재판은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은 유족의 몫이 됐다.

취재는 쉽지 않았다. 1984년 헌병대 수사기록 등 수십 년 전 자료들을 한 장씩 읽고 있으니, 그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쇳덩어리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취재 기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보도 후 변화가 있었다. 군 의문사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고필주 일병은 순직이 인정됐다. 가해 병사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보도 후 유족들에게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은 그날 밤, 기자란 무엇인가 생각했다. 사회 속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자가 아닐까? 그게 아무리 소수의 목소리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치열하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

30분 방송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 방송은 협업이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한다. 밤낮없이 고생한 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 국민신문고
◆ 본방송 : 매주 금요일 밤 9시 15분
◆ 재방송 : 매주 일요일 밤 9시 15분
• 부장: 오승엽
• 취재기자: 이연아, 김주영, 한연희
• 카메라기자: 김태형, 박정호
• 영상편집기자: 서영미, 주혜민
• PD: 배인수
• MC: 유석현
• 작가: 손지은, 박경화, 이지욱, 박정희
• 그래픽: 지경운, 송인승, 이원희
• AD: 이주은
• VJ: 이정현, 이경만

안용고 | 기술국 IT시스템팀

10월14일 토요일, 행주산성 인근 식당가...
녹색 잔디구장을 보유한 족구장에서 기술인협회 가족들의 아기자기한 체육대회가 열렸다.
아니 정확히는 운동회였다.
웃음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
그래도 체육대회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축구, 족구, 배구 등 3종목 이상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데
협회원들의 변명은 끝이 없었다.
난 어제 야근을 해서… 전 오후에 근무라서… 지난번 야유회 때 조상헌 부장이 다리가 부러졌다며?
그래서 탄생한 명랑운동회!!!
체력소모 없고, 다칠 염려 없고, 재미 없을까봐 걱정 없는 이른바 3무(無) 운동회가
기술국 귀염둥이 최광희 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레크레이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학업까지 병행한다고…)

◆ 78 VS. 60

"오늘 준비한 선물이 78개이고, 현재 참석하신 분이 60명입니다. 결코 단 한 분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 라는 기술인협회 조상우 협회장의 개회사에 모두들 눈이 반짝 반짝했다. 평상시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입꼬리도 올라갔다. 이런 얼굴이었어?? 목소리도 커져갔다. 아… 선물이 뭐라고…

◆ 기술인협회 ≠ 기술국 ??

기술인협회하면 전부 기술국 사우들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회원 자격이 기술 업무를 보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할 수 없지만, 현재 총무, 자산, 글로벌팀 등에서 일하는 사우를 포함해서 제주, 부산, 창원, 대전, 대구, 광주, 강릉 7개 지사 영상취재기자도 기술인협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개국 초기에는 전국 각 지사에도 중계차를 운영했는데 10여 년 전 지사에서 중계차를 철수하면서 영상취재기자로 보직을 옮기신 선배님인데 아직도 협회를 탈퇴 안 하고 기술국 하고의 끈끈한 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향을 버릴 수 있나?" 하고 털털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특히 지사에 계신 분들은 자주 함께 할 수 없어 죄송했는데, 다행히 얼마 전 협회 집행부가 제주에서 지사 워크숍을 협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열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참석했다고 한다. 여기엔 제주 정두운 선배의 잠자리 제공이 결정적 한방이었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

정채봉 기술국장

박석중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조상우 기술인협회 협회장

박진수 노조위원장

◆ 구(?)선배가 있다면, 신(?)후배도 있기 마련!!

얼마 전 뉴스편집팀에서 기술국 제작1부로 부서가 재배치된 부조FD와 중계부 막내AD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삼촌(?)이나 작은 아빠(?)뻘 나는 선배들하고 말 섞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색함을 감추고 밝은 얼굴로 웃음을 선사했다. 후배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감사~~

◆ "마냥 부럽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박종석 회장의 멘트에는 KBS, MBC 파업으로 인한 무거운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모인 YTN 기술인협회 '명랑운동회'의 분위기는 무거움을 날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재수없는 사람은 늘 있는 법. 남들 2개, 3개 선물 챙길 때 빈 손인 사람이 무려 5명… 하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3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물을 내놓았다. '아… 훈훈해' 새롭게 시작하는 YTN이 더도 덜도 말고 바로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날이 너무 좋아서,
술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날 하루는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

2017 YTN – 연천, DMZ 평화자전거대회 랠리 100

자전거대회를 마치고…

변재철 차장 | 미디어사업국 총괄사업팀

올해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가 안타깝게도 불발됐다. '새옹지마'라고, 이는 YTN의 평화염원자전거대회 개최의 단초가 되기에 충분했다. YTN의 영어토론대회를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로 만들어낸 이동열 팀장이 등 뒤에 있어 더욱 의욕이 넘쳤다. 팀장께서는 "변 차장! 당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대회를 추진한다는 각오로 하면 이 대회는 성공할 거야!" 라며 나의 어깨를 꽉 잡았다. 사전 시장조사를 하며 더욱 자신감이 있었다.

대회 준비는 YTN과 연천군과의 MOU 체결과 함께 시작됐다. 먼저 YTN 본사에서 약 100km 떨어진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는 100km 코스를 만들어 내야 했다. 연천군 직원과 함께 하루 약 300km를 주행하며 가능한 코스를 발굴하고는 다시 100km를 달려 회사로 복귀하면 밤 9시. 하루 평균 500km 넘게 달리면서 연천군을 한 달 넘도록 들락거렸다. 겨우 코스 잡아 놓으면 국도라서 교통통제가 안되니까 다시, 또 DMZ 구간 연결이 안 되니까 다시, 도로 노면 상태가 너무 나빠 다시, 주택가가 밀집해 민원발생 우려 있어 다시, 너무 고도가 높아 다시, 철길 건널목 있어서 계측 구간 설정 안 되니까 다시, 자전거 교행 안 되니까 다시, 이래 다시, 저래 다시, 아~ 좋은 코스 발굴하는 게 이리 힘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겨우 DMZ 구간 포함해 코스를 확정했지만, 코스 중 어려운 구간 정비가 문제였다. 연천군에 부탁했지만, 담당 체육팀장은 기막혀했다. "변차장님! 100km 구간 도로보수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걸 체육팀장이 해 달라고요? ㅎㅎㅎㅎ!" 하지만 난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졸라대기 시작했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나보다 손위였던 체육팀장과 친해질 수 있었다. 처음엔 나만 보면 인상 쓰던 팀장은 나중엔 나만 보면 나중엔 도망가며 손사래를 치곤했다. 결국 연천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로 보수와 코스 안전 자원봉사자 360명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DMZ 구간 진입은 해당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처음에 만난 2개 사단의 부사단장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줘서 쉽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워낙 대규모의 민간인 출입인데다 북핵 문제로 인한 심각한 사회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방부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다. 누구를 접촉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더듬더듬 국방부 담당을 찾아 설득하고, 부탁하고, 공문을 보냈다. 협조가 필요한 곳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정전위원회, 각 해당 군부대… 게다가 뉴스 진행을 위해서는 공보처와 해당 부대 문화 장교, 공보장교… 경기 북부 경찰청 경찰 60명 지원…

그랬다. 겁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밀어붙이면 다 될 줄 알았다. 한두 군데 연락하고 공문 접수하면 비상연락망처럼 시스템이 돌아가는 줄 알았다. 코스는 연천에서 정해줄 줄 알았고 DMZ 구간은 군부대에서 정해줄 줄 알았다. 그저 나는 대회 진행과 홍보에만 전념하면 되는 줄 알고 있던 것이다. 바보 같이… 게다가 아주 고맙게도(?) 북한은 핵실험을 재시작하고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했다. 조건부 승인해 줄 테니 잘 추진해보라던 국방부는 서류를 붙들고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내 가슴은 타 들어가다 못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두 달이 넘게 걸렸다. 8월 14일 보낸 승인 요청 공문은, 행사를 12일 앞둔 10월 17일에야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더니, 숨이 멎기 직전 '승인 공문'을 받은 것이다. 명칭 후원을 받기 위한 문광부, 통일부, 경기도의 공문 진행도 녹록지 않았고, VIP들을 초청하기 위한 업무 또한 쉽지 않은 일들이었다. 동시에 타이틀 협찬사도 모셔야 했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 때문에 대행사와의 재협상도 반복해야 했다. 조금 과장하면 피와 뼈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 수면제 없이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전단지와 포스터를 들고 자전거길로 나아갔다.

대회 나흘 전, 지인이 끔찍한 정보를 알려줬다. 춘천의 한 자전거대회에서 사고로 중학생 사망했는데, 주최사에 거액을 배상하고 담당자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됐다는 얘기였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몇 회를 반복한 해당 대회의 주최사도 나름대로 철저히 안전사고 대비를 했을 텐데… 우리는 처음인데…'

D-day,

주행 코스에서 앰뷸런스 요청 무전이 들어올 때마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제발 많이 다치지 않게 해 주세요…"하는 기도가 자연스레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다행히 대부분 찰과상이나 타박상에 그쳤다. 많이 다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다중골절 부상이었다. 생명엔 지장 없지만 즉시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다. 후유증 없이 완쾌되시길 또다시 기도한다.

자전거대회는 안전사고의 리스크만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기획 단계부터 행사 마무리까지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신 이동열 팀장님과 옆에서 굳은 일을 묵묵히 도와준 윤희정 씨와 팀원 모두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의 안전 개최를 위한 고민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 랜드마크

남산서울타워 어벤저스

김정기 과장 | 타워사업국 타워사업팀

안녕하십니까! 타워사업팀 김정기입니다. 대한민국 랜드마크 남산서울타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팀을 소개할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코믹스를 좋아해 팀원들을 캐릭터로 표현하고자 하니 넓은 아량으로 읽어 주세요. 타워사업팀은 '단출하게' 총 3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이하 MCU)의 초반 캐릭터로 팀원을 비유해본다면…

투철한 애국(사)심과 사명감 그리고 근성의 '캡틴 아메리카' 최유석 팀장

어벤저스의 리더로 캡틴 아메리카가 모든 사건에 앞장서는 것처럼 매일 타워사업팀의 크고 작은 모든 업무에 솔선수범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팀장님의 사업에 대한 직감은 빠르고 추진력이 있어 타워사업팀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고 있어요.

천둥의 신 '토르', 영업(유통)의 神 박재범 부장

MCU 원작에서는 천둥의 神으로 영화에서는 외계인으로 표현되지만, 토르의 막강한 체력과 다양한 전투경험은 어느 MCU 캐릭터보다 탁월하죠. 박재범 부장은 유통(백화점)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산서울타워 내 매장 유치와 운영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어엿한 어벤저스 일원인 '아이언맨' 김정기

MCU에서 아이언맨은 재능만 믿고 자기애가 넘쳐 팀원으로 부족했지만, 어벤저스의 당당한 일원으로, 결국엔 영웅으로 거듭나는 캐릭터죠. YTN 입사 후 타워사업팀에서 마케팅홍보 담당으로서 근무하며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도 영웅이 되어볼까 싶어서요.

MCU의 어벤저스는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 집단이며, 평화의 상징입니다. 남산서울타워 어벤저스도 대한민국 랜드마크인 남산서울타워를 수호(?)하고 있답니다. 3년 전 YTN서울타워 본관동 리뉴얼 공사(이때는 서울타워본관동TF팀)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공식 오픈에서 현재까지 본관동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임대매장 입점 업무, 신규사업 개발, 대관사업, 홍보 마케팅 등을 진행 중이죠.

최근 남산서울타워 방문을 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타워에 이런 곳이 있었나?", "볼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많이 변했네?", "열쇠만 있었는데 볼 게 많네?", "와~ 많이 좋아졌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뒤에서 미소 짓는 어벤저스입니다. YTN 본사와 거리상 떨어져 있어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YTN 임직원이 많으실 거에요. 이렇게 사보 한 페이지로 모두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우니 가족과 함께 남산서울타워에 나들이 오셔서 화창한 이 가을의 정취를 느껴 보시면 어떠실까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남산서울타워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러 오세요. 사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7년 3분기 자랑스러운 YTN인 상

특종상

금상 _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금품수수 의혹〉 연속 단독 보도

전준형 _ 정치부

이종원 _ 정치부

조성호 _ 정치부

류석규 _ 영상취재1부

은상 _ 〈데이트 폭력〉 단독 및 연속 보도

최기성 _ 사회부

신지원 _ 사회부

박한울 _ 영상취재1부

심관흠 _ 영상취재1부

동상 _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관련〉 연속 단독 보도

권남기 _ 사회부

김영수 _ 사회부

김세호 _ 영상취재1부

동상 _ 〈히딩크, 한국대표팀 감독 용의 있다〉 단독 보도

김동민 _ 스포츠부

김재형 _ 스포츠부

콘텐츠상

- 금상 _ 최기성 / 김영수 / 차정윤 _ 사회부 / 최광현 / 김세호 _ 영상취재1부
- 은상 _ 이연아 / 김태형 / 주혜민 _ 제작2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누가 진실을 외면하나'〉
- 동상 _ 박선영 / 강현정 / 강민섭 _ 글로벌센터 콘텐츠제작팀
  〈빈 깡통의 눈물〉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특별기획

공로상

- 은상 김혜원 _ 글로벌센터 글로벌기획팀
  〈YTN해외 (인니, 일본, 사이판) 플랫폼〉 공식 진출 성공
- 은상 김태균 / 양훼영 / 이성규 _ 사이언스TV 과학뉴스팀
  YTN사이언스 10주년 특집 〈10살을 축하해〉 제작 방송

선정 이유

매달에서 분기별로 포상이 변경된 뒤, 특종상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 특종상 금상인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금품수수 의혹 연속보도는 당 대표직 사퇴를 불러오며 정치권의 오랜 악습인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경종을 울린 점이, 은상인 데이트 폭력 보도는 충격적인 CCTV 영상 확보와 후속 보도로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낸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공동 동상인 히딩크 감독 단독보도는 인물도 시스템도 부재한 축구협회의 독단을 고발하며 축구계를 뒤흔들었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연속보도는 참사 이면에 가려진 하루 평균 16시간 운전 실태를 파헤쳐 버스업을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 기획보도상과 베스트편집상 등을 통합합 '콘텐츠상'의 첫 수상작이 된 기업 갑질 단독보도는 혹독한 취재 과정과 팩트 확인으로, 묻힐 뻔한 '을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알린 취재팀 열정에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상을 결정했습니다.

– 콘텐츠상 은상은 국방부의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수사 왜곡을 고발한 점이, 동상은 고려인 이주 역사를 재조명해 외면 받아온 고려인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킨 노력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을 개척하며 성과를 올린 글로벌기획팀, 사이언스TV의 지난 10년과 또 다른 10년을 준비한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한 과학뉴스팀은 성실성과 전문성이 높게 인정돼 공로상 공동 은상에 선정됐습니다.

밀로의 비너스 (Venus de Milo) Acrylic on Canvas 130.3 x 116.8cm 2017

'환영'을 통한 또 다른 '환영', '실재' 이상의 '실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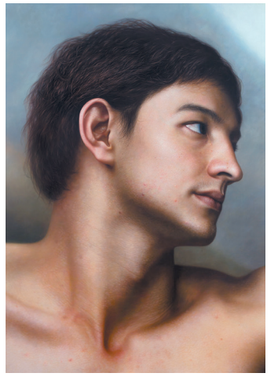
_ 정중원 작가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극사실주의는 영국에서 발아해 미국에서 꽃을 피운 팝아트(pop art)가 점차 쇠퇴해질 무렵인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출발한 회화 및 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가리킨다. 극도의 사실적 기법 아래 주관을 완전히 배격한 중립적 입장에서 기술되는 이것은 사진보다도 더 사실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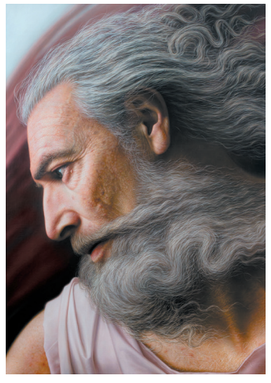
홍경한 | 미술평론가, 강원국제비엔날레 초대 예술총감독

사실을 소환한다는 차원에서 사진과 극사실주의는 맞닿는다. 그러나 즉물주의의 발상과 미니멀의 몰개성주의를 흡입하고 추상미술로부터 완전히 이탈한다는 점에서 극사실화는 종래의 추상미술과 사진 자체에 대한 아이러니까지 담보한다는 차이가 있다. 더구나 극사실화는 멀리서 보면 사진이고, 가까이서 보면 붓의 움직임과 원근감이 살아있다. 사진처럼 형상을 재현할 수 있는데다 사진은 할 수 없었던 일종의 환영(illusion)효과를 던져주는데, 이를 사진의 환영을 통한 또 다른 환영이라 부른다. 이런 점에서 극사실화는 사진에 역공을 취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 (Michelangelo's Adam) Acrylic on Canvas 130 x 162cm 2017

극사실주의자들은 주로 아무 뜻 없이 사물이나 장소, 친구나 가족 등 '흔한 것'들을 화면에 등장시킨다. 우리 가까이 있는 광경들을 일순간 정지시켜 강조해 표현하며 지나치게 정확하고 세밀한 묘사, 사진(혹은 도구)을 이용한 표현 관계를 담아낸다. 그러나 최근의 극사실주의자들은 어떤 실제의 대상을 재현하는 것을 포함해 그 '사물 자체와 직면'하는 상황까지를 영역으로 한다. 수없이 많은 드로잉과 현장 경험까지 덧대어 자신의 생각과 해석, 관점에서의 극사실주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정중원의 그림도 이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는 놀랄 만큼 섬세하게 표현되고 몰개성적인 극사실주의에 근접해 있지만 작가만의 사고와 가치관의 유영을 담은 그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신 (Michelangelo's God) Acrylic on Canvas 130 x 162cm 2016

그의 여러 작품 가운데 극사실에 초점을 둔 작품을 언급하면 좋겠지만 필자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은 '신격화된 셰익스피어'이다. 어느 인터뷰에서 정 작가는 20여 명의 인물들이 들어서 있는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신격화된 셰익스피어'의 구성은 신고전주의를 상징하는 작가인 앵그르의 '호메로스의 신격화'(신성시된 호메로스, 1827)에서 빌려왔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 아테네의 조각가 페이디아스, 극작가 몰리에르, 화가 니콜라 푸생 등 고전과 근대를 아우르는 예술가들을 새긴 앵그르의 그림에서처럼 '신격화된 셰익스피어'에도 그에게 영향을 준 여러 인물들이 시대 순으로 들어서 있다.

정 중 원
_홍익대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및 동 대학원 화화과 석사과정 수료

- **주요 개인전** 2017 정중원 초대전 〈YTN ArtSquare〉 / 2017 석사학위청구전 '의문스러운 형상' 〈대학로아트센터〉 / 2014 'As Real As It Gets' 〈Calvary Convention Centre,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 2012 'FACES' 〈MIEL〉
- **주요 그룹전** 2017 인물화 특별전 'The Face' 〈키다리갤러리〉 / 2017 새로운 형상, 실재와 환영 展 〈석당미술관〉 / 2015 'Master's Workshop' 〈Galeria Roja, 스페인 세비야〉 / 2014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Marco Polo, 홍콩〉 / 2014 KIAF 〈코엑스〉 / 2014 2인전 '시선 너머' 〈CSP Art Space〉 / 2013 '도'展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2012 홍익 국제미술교류전 〈대학로아트센터〉 / 2011 제 26회 한일교류전 〈오사카 예술대학〉 / 2011 Beaux-Arts 〈센터원빌딩 VVIP 라운지〉
- **주요 소장처**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이육사 문학관, 대전복합터미널
- **방송 출연**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90화 〈2017. 3〉 / KBS World Radio 〈2017. 3〉 / EBS 교육대토론 〈2017. 3〉 / JTBC 말하는대로 12화 〈2016.12〉 / KBS 파노라마 '청춘, 혜초' 〈2015.1〉

〈신격화된 셰익스피어 (The Apotheosis of Shakespeare)〉 Acrylic on Canvas 73 x 100cm 2011

우선 맨 위에는 고대 로마제국 후기 스토아학파의 철학자인 세네카를 비롯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인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 같은 선대 작가들이, 그 아래에는 엘리자베스 1세네카를 비롯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인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 같은 선대 작가들이, 그 아래에는 엘리자베스 1세, 크리스토퍼 말로우, 벤 존슨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괴테, 베르디, 로렌스, 올리비에 등 후대의 사람들을 그렸다. 작가의 예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다.

〈호메로스 (Homer)〉 Acrylic on Canvas 112 x 162cm 2013

〈예수 믿으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Acrylic on Board 40 x 56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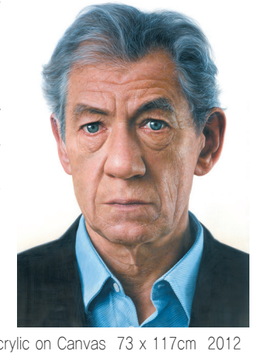
그의 많은 인물 작품들은 '표현'으로서의 한계점을 '재현'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새로운 리얼리즘 방법을 통해 다시 작품에서의 주제를 되살리고 전혀 다른 독립적 복제성, 가상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고루 엿보인다. 같은 선상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작업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작품이다. '예수 믿으세요?'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성자들을 옮긴 일반 성상과 형태는 같으나 예수가 매우 비만이라는 사실이 눈에 띈다. 기업화, 교회자체가 숭배되는 현실을 에둘러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성부와 성자'도 시선이 가는 작업이다. 후광이 드리워진 김정일과 김정은을 그린 이 작품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일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 혹은 숭배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는 북한의 '사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의 그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의 얼굴들, 즉 세월과 삶의 흐름이 녹아 있는 한 노인의 얼굴을 그린 '할아버지(Grandpa)'를 비롯해, 작가가 닮고 싶고 좋아하는 배우로 꼽은 '이안 맥켈런(Gandalf)', '호메로스(Homer)'와 같은 작가, 극단에서 활동하는 주변 지인들 등도 그의 작품을 빛내는 주인공들이다.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장인적인 과정이 작업에 녹아 있다. 극사실주의에 걸맞게 개성이 거세됐지만 그 자체로 개성이 되는 작품들이다.

한편 흔히 극사실주의를 말할 때 구시대적인 획일주의에 빠져 작가의 개성 상실과 기계 종속적인 입장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지만 오늘날의 작가들에게 이러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작금의 작가들은 단지 사물을 정밀히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작가의 정신세계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Technique)의 한 가지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중원의 작품들도 그렇다.



〈페르소나 (Persona)〉 Acrylic on Canvas 73 x 117cm 2012

한옥의 맛 정병진 앵커

청와대와 삼청동 사이 조선시대 8명의 판서(장관)가 살았다 하여 불린 '팔판동'이란 동네가 있다.
나무 냄새 물씬 나는 이 낡고 오래된 한옥촌에 하하호호 웃음꽃 마를 날 없는 네 가족이 둥지를 틀었다.

사랑채에 주방과 이어진 안채 하나, 5평 남짓한 작은 마당이 이들의 새 안식처다.
겨울엔 춥고, 주차도 번거롭다던데… 넓고 편안한 아파트 마다하고 좁고 불편한 한옥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 고운 딸, 선 고운 아내, 힘 좋은 아들과 함께 한옥살이에 나선 정병진 앵커를 만나본다!

| 협찬 | Creta 크레타 스튜디오 www.icreta.com / 02_3142_0010, 0070
촬영 / 임혜란 실장 인터뷰 / 김여진 앵커

•한옥살이는 언제부터?

10월 중순에 이사했어요. 1960년대 지어진 한옥인데요. 기둥 하나와 보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해체하는 대수선 작업을 하고 들어왔어요. 깨끗하게 정비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한옥살이가 시작되는 구나 실감이 됐어요.

•불편함 자처한 이유는?

온통 편리한 거 투성이인 세상이잖아요. 좀 더 불편하고 어려운 걸 겪어보는 것도 사는 묘미가 아닐까요? 추우면 난로 피우고 냄비 올려 라면 끓여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주차를 위해 인근 상점 주인과 안면을 트거나 주차 협조를 구하면서 이웃도 서로 알아가고 동네도 익히는 맛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죠. 집이 좁아 침대도 팔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요 깔고 잠을 자야 해요.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 간의 거리도 한 뼘 더 가까워져 되레 좋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다들 좋아해요. 특히 큰 아이는 겨울엔 마당에서 매일 눈싸움을 하겠다 하고, 여름엔 엄마 아빠가 마당에 설치해 줄 어린이 풀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내는 장독을 마련해 김치를 담그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현될지는 의문입니다. ^^

•한옥살이의 매력을 자랑하자면?

온 집안에 햇빛이 스미고, 처마나 창호의 창살 그림자가 방안을 쭉 훑고 지나가는 게 매력적이에요. 툇마루에 앉아 맥주 한 캔 들고 마당에 펼쳐지는 계절의 변화를 보는 즐거움이 쏠쏠합니다. 뒷집과 옆집 그리고 우리집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작은 숲에 둘러싸인 기분이 들어요. 마루에 앉아 첫눈 맞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늘 남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 '정병진'은 어떤 사람?

한 때 제 온라인 아이디가 '그만 나대'였어요.^^ 그만큼 어릴 적부터 저를 드러내고 남들 앞에 나서길 좋아했거든요. 뜬금없이 길거리에서 뮤지컬 노래를 부르거나 남들 앞에서 사회 보는 일을 자처하곤 했죠. 성격이 차분한 아내와 연애하면서 비로소 절제를 배웠고 저도 덩달아 차분한 구석이 생겼죠. 생각과 의사결정이 약간 느린데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그럴까요?^^

•뉴스 앵커 이전에 독특한 이력이 많던데?

대학 시절 대학로 〈극단 불꽃〉에 입단해 연극 배우로 9개월 동안 활동했어요. 창작극 '잊혀진 시간'으로 독일 공연까지 한 경험은 잊을 수가 없죠. 군 복무 때는 45인승 대형버스 운전병이었는데 그 덕에 자이툰 파병 지원에 덜컥 합격했어요. VIP 수송이나 병력 이동 버스 운전 임무를 맡았죠. 제 손에 여러 전우들의 목숨이 달렸다는 불타는 사명감에 열심히 가속 페달을 밟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뉴스 앵커로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내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9월 12일 밤,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나는 바람에 회사는 특보 체제로 전환됐죠. 근데 병원에서 아내가 산통이 시작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병진아 아들이 더 급하다"며 정찬배 선배가 얼른 가보라고 외치셨고, 특보를 뒤로 한 채 황급히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그 이튿날 아들은 무사히 태어났는데요. 절대 잊지 못한 날이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떤 뉴스 앵커가 되고 싶나?

"저 앵커 하는 말은 이해하기가 쉬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시청자 보기에 저는 안 보여도 뉴스는 쉽게 잘 보이도록 돕는 앵커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누구나 다가서기 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죠. 같이 일하기에 어렵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눈 맞추고 진심을 나누는 선·후배이자 동료로, 함께 '좋은 보도' 만드는 식구로 남고 싶습니다.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몽환적인 동화의 세계를 엿보는 즐거움

– 차이코프스키의 발레음악

유석현 앵커 | 국민신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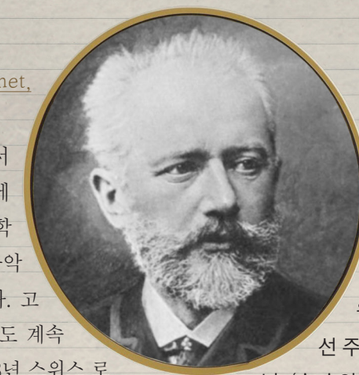
런던에서 열린 국제비타민학술대회를 취재한 것은 1989년 가을이었다. 학회가 끝나면 스위스 바젤로 이동해 제약회사 로슈(Roche)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취재진의 끈질긴 요청으로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 방문 일정이 추가됐다. 취재진이라고 해봤자 나를 포함해 달랑 기자 2명뿐이었는데 취재 열정이 넘쳤던 모 일간지 K기자가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AIDS 원인균을 발견한 뤼크 몽타니에 박사를 인터뷰하겠다고 고집했던 것이다. (몽타니에 박사는 200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하지만 스케줄이 꽉 차있던 유명인사 몽타니에 박사는 결국 만나지 못했고 파스퇴르 연구소만 견학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앞서 바젤 로슈 본사에선 커다란 강당에서 기자 둘이 달랑 앉아 다큐멘터리 '로슈의 역사'를 봐야했고 한 시간 단위로 비타민에 관한 강의를 들어야 했다.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연구원들이 차례로 들어와 '비타민과 노인', '비타민과 임신부', '비타민과 청소년' 등을 주제로 강의했는데 가뜩이나 빡빡한 일정으로 졸음은 쏟아지는데 학생은 두 명 뿐이고… 그런 고역이 없었다. 게다가 첫 강의 시간 말미에 "Any question?"하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어설프나마 질문을 하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질문을 해야 그럴듯할까'만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로슈는 세계 최대의 비타민 원료 메이커로 비타민제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수익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에 관한 연구 결과 홍보에 적잖은 예산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로슈 홍보담당자(스위스 사람은 너무 정확해서 싫다는 미국인이었다)의 안내를 받아 가며 최고급 식당에서 밥 먹고 특급 호텔에서 묵으면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대접을 받았다.

바젤 체류 마지막 날 로슈 측은 한국서 온 취재진을 위해 바젤 미술관을 관람시켜 주겠다며 중년의 여성 해설가까지 호텔로 보내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바젤 미술관은 스위스 공립미술관으로 세계 최고의 역사를 지닌 유명 미술관으로 특히 큐비즘의 콜렉션은 세계 굴지의 수준이었다.

문제는 K기자였다. 그는 마눌님이 스위스 가면 '뻐꾸기시계' – 그 때만 해도 한국엔 뻐꾸기시계가 없었다 – 를 반드시 사 오라는 특명을 받았다며 쇼핑을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결국 큐레이터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정말 아쉽지만 미술관은 다음 기회에 보겠다고 – 지금까지 바젤미술관은 가보지 못하고 있다 – 양해를 구했다. 그때 큐레이터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뭔가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냥 '빠이빠이' 하기엔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그녀에게 물었다.

"쇼핑하는 김에 내가 좋아하는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로망드 관현악단의 발레음악 LP 음반을 사고 싶은데 바젤에서 가장 큰 음반 가게가 어디 있나요?"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정색을 하더니 음반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줬다. 솔직히 그날 난 앙세르메의 음반을 사지 않았다. 뻐꾸기시계는 나도 하나 샀다.



• 에르네스트 앙세르메(Ernest Ansermet, 1883. 11. 11. ~ 1969. 2. 20.)

제네바 동쪽 비비에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나 5살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학교에서는 수학 신동으로 불렸다. 소르본 대학과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음악 공부를 위해 파리음악원에도 입학했다. 고향에서 수학 교사가 됐지만 음악 공부도 계속해 1910년에 지휘자로 데뷔했다. 1918년 스위스 로망드 관현악단을 창설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968년 까지 상임 지휘자를 맡아 유럽 굴지의 악단으로 키웠다. 수학을 전공해서 인지 냉철하게 악보를 해석하고 정확한 박자감과 뛰어난 표현력을 지닌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 앙세르메의 베토벤 5번 교향곡 음반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면도칼로 종이를 베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 표트르 차이코프스키(1840~1893)의 발레 음악

1.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가 37세인 1877년 2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된 4막짜리 발레 음악. 초연에는 실패했지만 차이코프스키가 숨진 뒤 뛰어난 안무가 프티파가 새로 안무하고 이탈리아 출신의 명 발레리나 피에리나 레냐니가 주역을 맡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대표적인 발레음악으로 자리잡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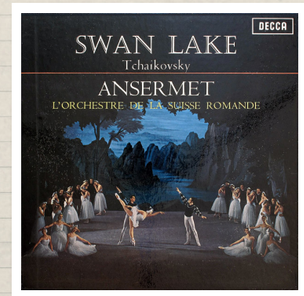
2. 숲 속의 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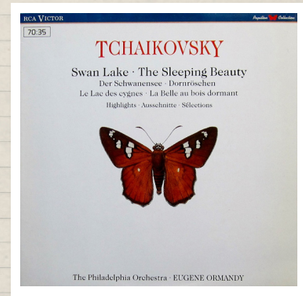
원작은 잠자는 숲 속의 미녀이지만 발레에선 주인공 오로라 공주가 잠자는 장면이 없어 그냥 '숲 속의 미녀'가 됐다. 스케일이 크고 무대장치와 의상이 화려해 공연이 쉽지 않은 작품이다.

3.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이브에 주인공 클라라가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고 인형이 왕자로 변하면서 함께 과자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이 클라라가 꾼 꿈속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과 함께 연말이면 단골로 공연되는 작품이다.

백조의 호수 1막의 '왈츠'와 2막의 '정경', 호도까기 인형 1막의 '눈의 왈츠', 2막의 '꽃의 왈츠' 등 귀에 익은 선율을 만날 수 있다. 발레공연을 보며 듣는다면 금상첨화.





[추천 음반]

• 전곡판과 주요 곡만 발췌한 하이라이트판이 있는데 하이라이트판을 먼저 들어보고 관심이 커지면 전곡판을 듣는 것이 좋다.

• 에르네스트 앙세르메 지휘, 스위스 로망드 관현악단(Decca)의 연주를 먼저 추천한다. 전체적으로 담백하면서 절묘한 리듬 처리와 선명한 음색으로 듣는 이를 사로잡는다.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그라모폰)의 연주는 아름다운 표정의 고운 음색이 매력적이다. 수많은 음반을 낸 지휘자답게 녹음 상태도 아주 좋다.

• 유진 오먼디 지휘, 필라델피아 관현악단(RCA) 음반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으로 발레의 특성을 잘 살린 연주로 평가받는다.

• 이밖에 발레의 본고장 러시아의 로제스트벤스키 지휘, 볼쇼이극장 관현악단이 연주한 음반(EMI)도 빼놓으면 섭섭할 것이다.

시대, 그리고 한국영화의 기회주의

최광희 | 영화평론가

해방 이후, 아니 그전부터 한국 영화가 정치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제강점기 말기, 황국신민의 징용 징병을 독려하는 영화를 찍은 친일 영화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인규다. 그는 〈사랑의 맹세〉, 〈신풍의 아들들〉(1945) 등 소위 어용 영화를 찍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해방 직후 〈국민투표〉 등 미군정청 주도하의 계몽영화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해방 전에는 징용 징병을 독려했던 그는 속죄라도 하듯 항일 독립운동을 다룬 〈자유만세〉, 〈독립전야〉라는 작품도 연출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됐다.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많은 영화인들이 반공 영화를 만들었다. 반공 영화를 만들면 수입이 꽤 쏠쏠한 외화 수입권을 줬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도 명맥이 살아 있는 대종상에는 '반공영화상'이라는 부문까지 있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영화에 대해 유화정책을 썼다. 정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는 강력하게 규제하되 성애 영화에 대한 검열의 끈은 슬쩍 풀어준 것이다. 〈애마부인〉 시리즈 등 1980년대에 유난히 많은 에로 영화가 쏟아진 것은 그 때문이다.

정치권력에 부역해온 영화의 역사는, 1993년 이른바 문민정부 탄생 이후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때부터 서서히 그동안 한국 영화가 다루지 못했던 정치적 소재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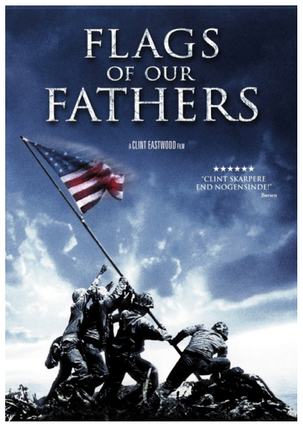
1996년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동안 숨죽여 왔던 영화인들은 밀물처럼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영화가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그러니까 분단의 아픔을 최전방에서의 우정으로 극복하는 남북한 군인들의 이야기였다. 영화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500만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이 나라의 보수 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 시간 동안 남북 문제에 대한 영화의 접근은 다분히 평화주의적인 것이었다. 비록 전쟁과 분단을 다뤘어도 그랬다. 〈태극기 휘날리며〉와 〈웰컴 투 동막골〉, 〈의형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MB가 정권을 잡고 난 이후 스멀스멀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19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유학파 이재한이 그 기회를 낚아채 〈포화 속으로〉를 선보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에 맞서 싸운 학도병들의 이야기였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더욱 노골적이 돼 이를테면 〈연평해전〉 같은 호국 프로파간다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 영화는 당시 벌어졌던 남북한 해군의 교전 상황에 대한 전 정권 (잃어버린 10년)의 좌시를 슬쩍 비판하고 넘어간다.

지난해 여름 개봉했던 〈인천상륙작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의 영화였다. 영화인들은 언제나 정치권력에 종속됐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애국'이라는 화두는 나쁜 게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정치 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실정을 가리는 선동 기제로 삼을 때는 나쁜 것이 된다. 알다시피, 애국과 호국은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박근혜 정권의 페이보릿 메뉴 (favorite menu)였다.



그런 정치 사회적 맥락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만약 영화의 만듦새가 썩 괜찮다면, 그건 그것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미국의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아버지의 깃발〉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두 편의 전쟁 영화를 선보였는데, 두 편 다 이견을 달 수 없는 걸작이었다.

그런데 〈인천상륙작전〉은 기대 수준을 밑도는 영화였다. 드라마가 빠진 액션은 공허하고, 땜질하듯 로맨스와 가족애를 얹으려는 시도는 실소를 자아낸다. 맥아더는 시종일관 폼을 잡고 멋진 말을 하고, 적진에 침투한 이정재의 진짜 미션이 무엇인지, 관객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눈치채기 힘들다.

지난 정권기에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만큼 쓸쓸한 것은 영화인들의 역사적 기회주의성을 방증하는 작품들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기회주의에는 애당초 진심도 진정성도 없다. 그러니 수준 이하의 영화가 나오는 것이다. 21세기에 최인규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첼로'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김만진 | 기술국 제작기술2부

100세 시대, 각종 암 보험과 연금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 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도 필수겠지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지요.
저는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 보시죠.

운명적 첼로와의 첫 만남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뭐예요?"

서른여섯 살 싱글인 만큼 적지 않은 수의 맞선 자리에서 딱 그 숫자만큼 묻고, 답했던 질문입니다. 저의 답변은 이제 거의 녹음 수준이죠. "지금 첼로를 배우고 있을 만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월 1회 이상 공연장에 가고 꾸준히 공연 영상을 찾아보기도 한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멋진 공연 실황을 촬영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맞선에서의 성과를 생각해본다면 이 멘트는 분명 바꿔야겠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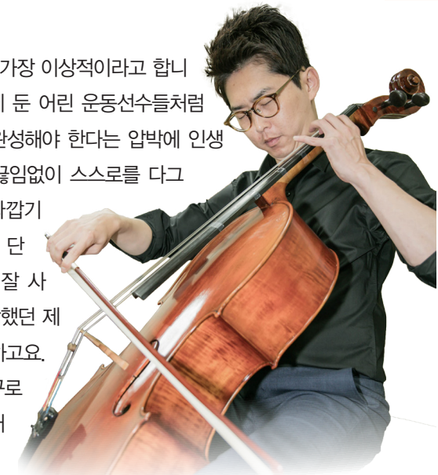
제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맹신하시고 '제2의 정경화'를 꿈꾸신 어머니 덕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과의 인연은 고작 1년뿐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기다렸다가 악기도 들어주면서 같이 집에 가는데 혼자서 손 시리게 들고 다니던 것이 어린 나이에 너무 서러웠나 봅니다. 그때 더 배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쿨하게. 어느 날 문득 다시 바이올린을 배워야겠다고 찾아보던 중에 성인이 돼서 바이올린을 배우면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말 때문에 '그럼 첼로로 하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운명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쿨하게.

왼손으로 짚고 오른손으로 그냥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첼로 소리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정감'과 '풍부함'입니다. 특히 첼로의 음역대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처음 들어도 낯설지 않고 편안합니다. 또, 바이올린처럼 화려한 연주는 물론 콘트라베이스처럼 묵직한 연주도 가능해 표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바이올린 족(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은 기타와 달리 지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저 같은 초보의 경우 매일매일 음정이 오락가락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왼손으로 현을 눌러 정확한 음을 짚고 오른손은 활 긋기(bowing)만 하면 되는데… 그 보잉도 참 다양합니다. 부드럽게, 단단하게, 또는 끊으면서 보잉을 해 슬픈 소리, 기쁜 소리, 어두운 소리, 무거운 소리를 내야 하는데 제 한 눈은 악보를 보고 한 눈은 왼손가락의 위치를 보느라 사시가 될 지경입니다. 게다가 두 눈의 흰자로는 저를 전공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선생님의 눈치까지 봐야 해서 깊은 피로와 함께 한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주 1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연습실에서 학부생에게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연습실들을 지나칠 때마다 호기심과 동경 때문에 종종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피아노에 엎드려 자는 모습, 악보를 보며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제 학창생활, 인생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또 고집스럽게 매진한 일이 있었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연주 능력은 크게 테크닉과 음악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20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마치 전성기를 눈앞에 둔 어린 운동선수들처럼 몸이 허락할 때 자신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에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단순히 '음악 하는 애들은 잘 사는 집 애들'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편견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저 역시 '카메라'라는 도구로 생각을 표현하고 심지어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 도구를 잘 다루기 위해 저렇게 연습한 적이 있었나 하는 반성마저 하게 됩니다.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애초에 연주자가 되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음악을 깊게 듣고 싶어서 시작한 레슨이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새삼 제 방을 둘러보니 '싫증 나면 나중에 딸 시키면 되지'라는 자기 합리화로 제 수준에서 거금을 주고 산 악기, 굳이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구입해 들여오느라 고생 꽤나 하게 만든 노랑 첼로 케이스, 시끄럽다는 이웃 민원 때문에 3일 동안 혼자 방 벽에 붙인 흡음제도 보입니다.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했던 제가, 이제는 가능하면 매일 한 시간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취미죠. 전문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인 만큼 저는 제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찾은 것 같습니다. 또 연주회에 자주 가면서 혼자 가는 것에 대한 공포도 없어졌고, 유튜브에서 다양한 공연 영상을 찾아보며 연주자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등 음악을 '보는' 즐거움도 덤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악기를 직접 만드는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연주 능력에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배우기를 포기해 어딘가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를 깎고 있을지도, 혹은 '음악은 역시 듣는 거야'라며 악기 감정을 배울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일단 오늘도 부푼 마음으로 레슨을 갑니다.

김여진 앵커의 Number & Talk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수사반장' 타이틀곡에 등장하는 경쾌한 봉고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타악기의 전설, 명인, 1인자 등등 수식어가 차고 넘치는
재즈 연주가 류복성 씨의 명곡입니다.

재즈와 친구한 지 60년이 됐어도 그의 연주는
전혀 낡은 법이 없습니다.
지독한 연습 벌레, 재즈에 대한 무한 사랑은
그를 언제나 악기 앞에서
천진난만한 소년으로 변신하게 합니다.

청바지에, 나이키 운동화, 아이폰과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각종 SNS로 팬들과 소통하는
재즈계 영원한 젊은 오빠.
류복성 씨를 만나봅니다.

한국 재즈의 살아 있는 역사,

칠순의 현역 드러머 '류복성'

인터뷰 | **김여진** 앵커

15 재즈와 처음 만난 나이

내가 중 2때였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AFKN 채널에서 한 음악을 듣는 순간 그 리듬과 가락이 그렇게 좋더라고. 당시 난 학교 브라스 밴드에서 교가나 국가 등 행진 드럼이나 치던 학생이었는데. '아~ 이게 진짜 음악이로구나!' 했지요. 당시 들었던 음악이 〈스트레이트 노 체이서(Straight no chaser)〉 이었는데 그땐 그게 재즈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미 8군 악단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재즈인 줄 알았지. 음악적 재능을 받을 만한 가족은 전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지리학자 겸 선비였고, 아버지는 목상(재목을 사고파는 상인)에 일자무식이었죠. 나도 공부하기 싫어서 한글을 국민학교(초등학교) 4학년 때에야 깨우쳤다니까. 하하하~ 1남 4녀 막내아들에다 3대 독자였는데도 어머니는 내가 음악 하는 걸 절대 간섭 안 하셨어. 재즈라는 음악에 푹 빠져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는데도 전혀 뭐라고 안하셨지. 내 맘대로 살도록 놔두셨던 거예요.

1964 '류복성의 재즈 메신저스' 탄생 연도

언론에선 결성 연도가 분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1964년이에요. 이봉조 악단에 소속돼 있을 때 배짱 있게 만들었으니 한마디로 '디졸브'인 셈이지. 당시엔 드러머가 몇 명 안 되니 이봉조 씨가 자꾸 못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악단에 소속돼 있으면 영화 음악에다 방송 출연도 자주 하니 돈은 좀 만지겠지만 그래도 난 재즈를 하고 싶었어. 하루는 유일하게 새벽 2시까지 하던 나이트클럽인 UN 센터에서 낮에 악기를 갖고 나가려는데 경비가 막는 거예요. 악단 총무가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북에다가 영어로 '류복성's Jazz Messengers'라고 새겨 버렸어요. 25살 패기로다가. 결국 이봉조 씨도 어이가 없어 웃더라고. 이후 워커힐 호텔 '힐탑'이란 곳에서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연주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당시 유일하게 재즈를 연주할 장소였으니 우린 마냥 좋아서 그 긴 시간을 즐기며 연주한 거예요. 나중에 KBS 악단장이 된 정성조(색소폰)와 김해운(기타), 유상봉(베이스), 나(드럼) 이렇게 넷이서 신나게 했죠. 우리가 최초의 재즈 밴드였던 셈이지.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의 60% 정도는 다 '류복성의 재즈 메신저스'를 거쳐 갔어요. 스타 메이커였죠.

1967 류복성 인생의 첫 번째 전성기

내 일생에 잊지 못할 인연이 있어요. 바로 카지노의 대부 고전락원 씨 (파라다이스 그룹 창업자)지. 어느 날 그 분이 이봉조 악단을 보러 UN 센터에 왔다가 봉고를 치는 나를 본 거예요. 일찌감치 미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라 재즈를 알고 있었던 거지. 당시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을 때인데 대뜸 똑같이 100만 원을 주겠다며 나를 스카우트 하더라고. 그만큼 배짱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인천 올림푸스 호텔 총지배인으로 전 씨가 옮겼을 때인데 저 보러 밴드를 꾸려서 오라는 거예요. 처음 경인 고속도로가 생긴데다 그 호텔에 카지노가 문을 열어 돈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드는 거죠. 이탈리아, 필리핀 밴드 등도 있었는데 우린 일명 '손님 내쫓는 밴드'로 고용된 겁니다. 전 씨가 그랬죠. "절대 댄스음악 하면 안 돼. 오로지 오리지널 재즈를 해야 해!" 당시 그런 전략을 생각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 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로 재즈를 원 없이 연주했죠.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나에게는 전성기였어요. 손님들은 다 싫어했지만 말이죠.

1971~1989 드라마 '수사반장' 방영 연도

'수사반장'으로 인기가 많았냐고요? NO~~ 전혀! 내가 거기서 봉고를 친 줄도 사람들은 몰랐어.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원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 편곡자였던 윤용남 씨가 수사반장 주제곡을 작곡했지. 당시 '봉고'를 치는 사람이 없었으니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런데 워낙 봉고 가락이 서스펜스 수사물 분위기와 딱 맞아 떨어지니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 '수사반장' 주제곡이 '류복성 작곡'으로 신문 기사에 잘못 나간 적도 있어 어떤 PD가 따질 듯 전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나중에 방송에서 난 '봉고'라는 악기로 피처링 한 거고, '류복성의 수사반장'은 내가 다시 만든 거라고 정정했죠. 난 참 운이 좋았어요. 어느 날 유명한 재즈 연주가 어기 콜론(Augie Colon)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걸음에 달려가 내가 재즈 드러머인데, 봉고가 내 애간장을 녹인다, 그래서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공짜로 가르쳐줄테니 술 한 잔 가끔 사라고 하더군. 덕분에 유학 안 가고 진짜배기에게 6개월 동안 배웠지. 난 그분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70 보유한 타악기 가짓수

'류복성 드럼 앤 퍼커션 스쿨'은 13년 전에 개인적으로 연습도 하고, 하우스 콘서트도 열고, 학생들도 가르칠 겸 만든 곳인데 드럼, 마라카스, 종, 봉고, 콩가 등 지구촌에 있는 타악기는 모두 다 갖고 있어요. 70여 종 쯤 될 거예요. 우리 생활 속 물건도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박에다 물을 넣어 실험적으로 만든 악기도 있고요. 가난한 데다 악기가 수입되기 시작된 것도 훨씬 나중 일이니까 라틴 악기들 구하기 참 힘들었지요. 미 8군에서 나온 LP 등을 들으면 여러 가지 타악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도무지 무슨 악기인지도 모르고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권총 같이 생겨 까르르르 소리 나는 오래된 아이들 플라스틱 물총을 활용하기도 했었지.

1992 국내 최고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 기획

1992년이 처음이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모두가 신경을 안 쓴 거지. 근데 나는 돈을 떠나서 재즈가 좋으니까 페스티벌을 만들었죠. 내가 무슨 공연 기획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뮤지션인데, 답답해서 연 거예요. 반응은 아주 좋았죠.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을 이틀 동안 꽉 채웠으니까 흥행에는 성공했지. 가수 최희준 씨가 당시 〈하숙생〉과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를 불렀을 때였어요. 방송국에 가서 재즈 페스티벌을 홍보하려고 하니 "뭐 최희준이 무슨 재즈를 해?"라며 비아냥대더라고요. 속으로 '니들은 재즈 역사를 몰라~'라고 그랬죠. 원래 최희준 씨가 냇 킹 콜의 〈Autumn leaves〉, 〈You don't know me〉 등을 부르며 서울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었거든요. 무대에 올려놓으니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다른 장르의 노래를 부르니 신선했던 거야. 이후 여러 가지 사정상 23년 뒤인 2015년에야 2회 행사를 열게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 열거예요.

60 재즈 데뷔 60주년

17살 때 프로로 나온 걸 기준으로 60주년인 거죠. 근데 요즘 시국에 공연을 안 보러 와요. 혼자 통장 털어서 공연을 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 다행히 최근 '유앤아이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외국 밴드만 데려와 공연을 여는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해서 내년 3월 데뷔 60주년 행사를 열게 됐어요. 그날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도 같이 열어 1부엔 국내 뮤지션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고, 2부엔 재즈 인생 60주년 공연을 펼치려고. 좋은 뮤지션들 초청해 대한민국 재즈 잔치를 여는 거지 뭐. 요즘에도 이태원의 '올 댓 재즈', 홍대 '에반스', 강남 '원스 인 어 블루문' 등 클럽에서 계속 연주하고 있으니 60주년 공연이 아니더라도 클럽에 와서 꼭 제 연주 들으세요!

2 두 개의 드럼 스틱 & 두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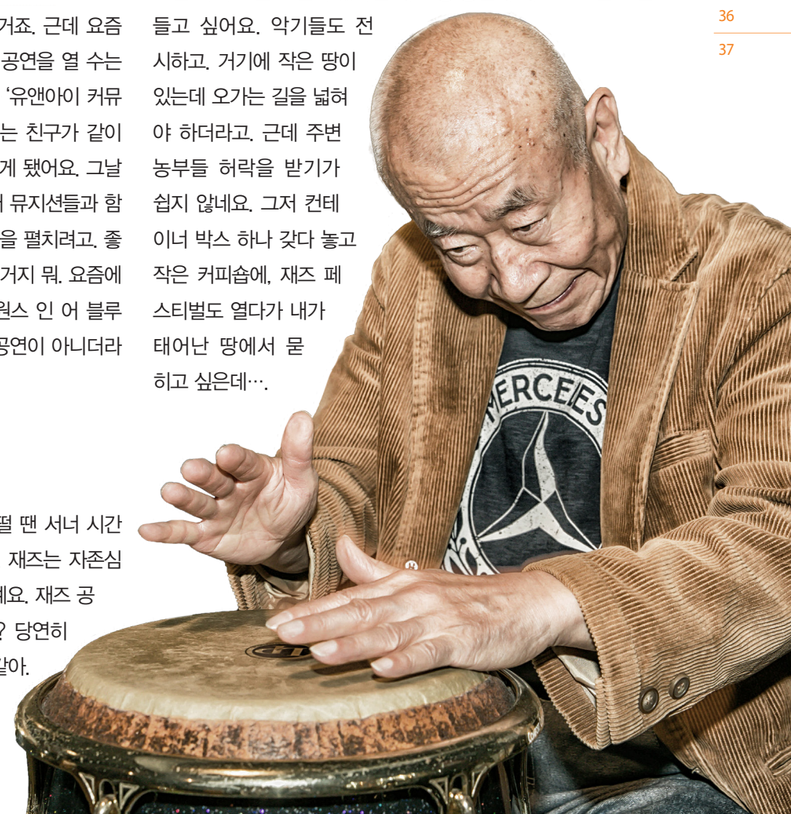
요즘도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1시간 내지 어떨 땐 서너 시간 동안 연습실에서 드럼을 치고 아침밥을 먹어요. 재즈는 자존심이자 나의 삶 그 자체니까 이렇게 매일 사는 거예요. 재즈 공부도 절대 게을리 하지 않아요. 공부 비법이요? 당연히 유튜브지! 유튜브가 돈도 안 들고 제일 좋은 것 같아.

뮤지션들의 연주 스타일, 보컬 방법 등을 비교해 들어가면서 '즐겨찾기' 했다가 다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재즈 음악이란 정말 민주주의적인 음악이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올라가는 척 하더니 지금은 아예 멈춰버린 거야. 재즈 뮤지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안에도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건 매스컴도 책임이 있어요. 재즈 프로그램이 몇 개 있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지고. 난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뿐이지. 매스컴에서 뭔가 다르게 한번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봐요. 계속 침체되는 거지 뭐.

77 올해 나이

칠십 평생을 해도 재즈는 참 어려워요.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면 그걸로 끝났다고 봐. 그 땐 음악을 그만 둬야 하지. 재즈란 게 흑인들에게서 나온 건데 흑인과 맞붙으면 우리가 게임이 안 되지.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거나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다 한국식 재즈인 셈이죠.

한 가지 남은 소원이 있다면 내 고향 용인에 재즈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 악기들도 전시하고. 거기에 작은 땅이 있는데 오가는 길을 넓혀야 하더라고. 근데 주변 농부들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네요. 그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작은 커피숍에, 재즈 페스티벌도 열다가 내가 태어난 땅에서 묻히고 싶은데….



YTN 이모저모

팬텀 클래식 with YTN 시상식 _ 10. 1

YTN KPP 15기 초청 연수 _ 10.15 ~ 18

〈2017 돈 오버도퍼 기자상〉 수상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_ 10.26

송호대학교 YTN 콘텐츠 교류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_ 10. 31

제9회 방송기자연합회 주최 체육대회 종합우승 _ 10. 21

정 중 원 초대전

Invitational Exhibition

2017. 11.1(수) ~ 12.31(일)

24시간 오픈 갤러리

YTN ARTSQUARE

뉴스는 YTN?
뉴스도 YTN!

대한민국 뉴스채널 YTN이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도약합니다.

한국의 뉴스채널 YTN 24

고품격 모바일 방송 YTN DMB

한국 유일의 보도전문 라디오 YTN NewsFM 94.5

한국 최초 과학전문 채널 YTN science

프리미엄 생활정보 채널 YTN life

720만 재외동포를 위한 방송 YTN WORLD

스마트 모바일 라이프의 리더 YTN PLUS

서울의 중심 YTN 서울타워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Exclusive Tomorrow YTN